



소프트웨어의 國際的保護 —WIPO專門家委서 檢討—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6月 13일부터 17日 까지 제네바에서 컴퓨터利用技術(소프트웨어)의 法的保護에 관한 專門家委員會를 열고 소프트웨어의 國際的 保護가 必要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WIPO는 소프트웨어의 保護作業을 70年代부터 始作해서 78년에 事務局이 「保護를 위한 모델條項」을 發表하고 79년에 第1回 專門家委員會를 열어 現行 法制에서 어떤 것이 保護되고 있는가를 檢討했다.

게다가 81년에는 新條約의 必要性등에 관해서 各國政府, 民間機關 등을 對象으로 앙케트를 調査해서 이것을 土臺로 소프트웨어 保護條約草案을 이번 第2回 專門家會議에 提出했다.

그러나 이번 委員會에서는 同草案의 소프트웨어의 定義등 各項目도 나라마다 意見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條約化를 保留하기로 決定했다.

따라서 保護策의 具體的·檢討는 來년에 發足하는 WIPO와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의 合同著作權委員會에서 現行著作權條約과 各國의 著作權法에서 어느 程度까지 保護가 可能한지를 檢討한 후 3回 專門家會議을 열어 特別條約의 是非를 포함한 保護方法을 摸索하기로 했다.

日本 政府에서는 條約締結에 積極的인 姿勢를 취하고 있으며 條約成立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國內立法은 可能하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日本 特許手數料引上計劃 —特許行政電算化財源마련코자—

日本 特許廳은 特許, 實用新案등의 出願에서 審査,

登錄에 이르기 까지 事務處理의 迅速化, 合理化 및 特許情報의 活用을 目標로 1984년부터 10年計劃으로 大規模인 業務電算化作業을 할 方針임을 明確히 했다.

이를 위한 總投資規模는 약 1,250億원으로 豫想된다. 財源을 確保하기 위해 1983年度부터 特許手數料을 5割 引上하는 外에 特許特別會計를 創設해서 計劃을 원활하게 推進할 計劃으로 있다.

日本 特許廳이 電算化作業에 着手할 方針을 굳힌 것은 航空機, 半導體, 로보트 등의 尖端技術分野를 中心으로 今後 特許, 實用新案의 出願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豫見되나 財政危機나 行政改革의 영향으로 그 處理能力의 強化에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專門代理人資格規則 改正 —EPO管理理事會서 決定—

유럽特許廳(EPO)은 유럽特許協約(EPC) 134條, 8(a)에 關한 EPO專門代理人資格試驗에 關한 規則을 改正키로 決定했다.

이 規則은 1977年 10月 21日에 採擇된 것이다.

改正主要內容은 資格試驗은 1년에 한번 行하며 申請者中 應試適格者가 20名 未滿일 경우에는 다음해로 시험을 연기한다.

다음해의 試驗期日은 延期된 試驗日字로 부터 1年을 超過할 수 없으며 應試資格者數에 不拘하고 試驗은 實施된다.

<EPO Journal 提供>

